

목예

모두가 승자 됐으면



은 나라가 월드컵 열기에 휩싸여 있다. 우리나라가 과연 몇강까지 올라갈 것인가? 16강은 이제 꿈이 아니라 현실처럼 되어가고 있다. 8강, 4강도 공상이 아닌 느낌으로 다가온다. 온 국민의 염원대로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랄 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승부의 세계란 냉정하며, 의외의 변수가 있기 마련이다. 또 이긴 쪽이 있다면 반드시 진 쪽이 있다. 한쪽의 환호 뒤에는 다른 한쪽의 슬픔이 있다. 즉 우리나라가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게 된다면 어쩔 것인가? 다행히 이번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기기만 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이기고 집이 있는 세계, 그 속에서 싸우지 않을 수는 세계가 바로 이 세계이다. 그 속에서 언제나 애환의 부침(浮沈)이 있다. 그것을 사바세계의 괴로움이라고 할 것인가?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웃어 넘길 것인가?

이렇게 웃고 넘기며 가볍게 보는 태도를 초연한 자세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냉소적인 태도야말로 당당한 태도가 아니라 승부에 대한 집착에서 나오는 것이며, 두려움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진정으로 승부를 넘은 사람은 오히려 당당하게 승부에 임한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공자는 활쏘기의 다름을 "그 다름이 군자답다"고 하였다. 저도 잘못을 자신에게서 찾으며 이거도 결함한 활쏘기의 자세를 찬양한 것이다. 힌두교 성전인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결과를 떠나 오로지 자신의 의무에 충실한 자세로 정당한 전쟁에 나서야 한다는 가르침을 펴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이긴 이(一切勝者)'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러한 우리 세상의 다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선 승부에 집착하는 그 마음을 넘어섬이 모든 것을 이기는 근본 자세일 것은 틀림없다. 그리고 일단 그런 확고한 바탕에 선다면 오히려 온 힘을 다하여 당당한 승리를 위한 싸움에 뛰어들 것이다. 불자들의 싸움은 그래야 하고, 또 그렇게 다름 때에야 승자와 패자가 없이,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다름이 있게 될 것이다.

성태용(건국대 교수·본지 논설위원)

때는 2002년 5월 31일 서울 상암 경기장. 월드컵 개막전 프랑스 대 세네갈. 여기서 우리는 세계의 축구 거함인 프랑스의 침몰을 지켜보았다. 이 쿠데타의 주역은 프랑스로부터 온

불자 세상보기



서명석

제주교육대 교수
교육학

식민통치의 질곡에서 풀려난 인구 1백만의 작은 국가 세네갈. 이번 중의 이번, 역시 축구공은 동글다.

지금 온 지구가 뜨겁다. 작은 축구공에 세계인의 아목이 울려있으니, 이와

중에 우리는 우리만의 일을 갖고 있다. 6·13 지방선거다. 대다수 사람들에게 선거는 관심을 끌지 못한다. 그렇지만 우리 관심의 폭을 두가닥으로 확장시켜 보자. 하나는 월드컵으로, 다른

법륜을 처음부터 다시 굴리자

하나는 지방선거로. 그런데 흥분할 사실이 하나 더 있다. 어느 일간신문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린 것을 보았다. 6·13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998명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전체 후보자의 91%를 차지한다고 한다. 최근 3년간 전체 후보 55%가 세금 납부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계적 수치다. 그렇다고 해서 이 수치를 그냥 지나

쳐 버리기에는 뭔가 찜찜하다. 왜일까. 축구공은 동글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어디로 굴러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것은 경기가 종료되어야 아는 법. 이 때문에 지구인이 축구에 열광하는 것이리라. 어디로 축구공이 굴러갈 지는 공안이 알고 있다. 하지만 공은 혼자서 구를 수 없다. 공을 다루는 선수들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그들도 공을 다루지만 그 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는 모른다. 여기에 묘미가 숨어 있다. 규칙에 따라서 선수들은 경기를 한다. 축구는 공동의 작품이다.

하지만 선거에서 다른 사람들의 지도자인 후보로 나서는 것은 혼자 하는 경기다. 즉 자신이 감독이며 동시에 선수가 된다는 말이다. 자기가 감독이려면 자신이 선수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따져 볼 것이고, 자격이 있다고 판단될 때 승전의 기회를 잡을 것이다. 이

때면, 축구 대표 선출에서 히딩크 감독이 보여준대로 그는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선수들을 교체했다.

우리들에게 지도자로 나서겠다고 선언한 이들, 자신을 자신만의 엄정한 심판대에 올려 보라. 그리고 함양이 되는 자격의 근수를 달아 보라.

공은 동글다. 그러나 공만 동글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동글다. 너무

동글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다. 왜? 원민주권하니까. 공은 둥근 원(圓)이다. 원이 아니라면 공은 구르지 않을 것이다. 그것만이 아니다. 동글면서 그 안은 텅 비어 있어 야 그 속에다 무언가를 가득 담아낼 수 있는 법. 이것이 원민주권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자신의 마음이 동글지도 않으면서 또 그 안은 비어있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남 앞에 서서 지도자 노릇을 하겠

다는 건지 도통 모름 일이다. 자신은 모나 있으면서-마음 안에 자신의 영달과 명예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입만 열면 나라 걱정, 풀만 나면 지역 발전 운운하는 이들, 그들에게서 우리는 바람 빠진 공의 흉물스런 모습만을 연상하게 된다.

그들 마음의 공은 아만과 욕심으로 가득 차는데 그런 공 속에는 남을 위하여 무엇을 담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달마대사가 <학백론>에서 전해주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는 시공을 초월해 여전히 살아있다. 마음, 마음, 그리고 마음 하지만 찾을 길이 없다. 너 그러를 때는 우주 법계에 없는 곳이 없어 꼭 차 있지만 썬을 땀 바를 하나

꽃을 데가 없도다. 나는 본시 이 마음만을 알고 싶고 했지 바람의 그 어떤 것도 구한 것이 아니다.

후보들이여, 자신 안의 그 마음부터 다시 찾아내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자, 최소한의 규칙을 지키면서 자신의 법륜을 여여하게 굴러 보라.

본문(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사찰여름수련회 이렇게

6월 25일 해인사를 시작으로 8월까지 송광사, 통도사, 대둔사 등 전국 30여 사찰에서 여름수련회가 열린다. 수련회 개최 사찰은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등

연령대별 참가자 점수에 돌입했다. 이에 프로그램, 진행방식 등 수련회 활성화와 보다 나은 질적 향상을 위해 수련회 경험자들의 제언을 모았다.

산사 체험기회 확대되길

○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본격화되면 산사를 찾는 대중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대인들에게 산사는 휴식처이자 좋은 수행처가 될 것이다.

현재 수련회를 개최하는 대부분의 사찰은 사전접수를 통해 참가자를 결정하고 있다. 운이 좋으면 한번의 신청으로 참가할 수도 있지만, 3-4년의 실패를 거쳐 참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련회를 개최하는 사찰이 보다 많아져 많은 이들이 불교와 산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기대한다.

해인사와 송광사 수련회에 참가해 보았지만, 두 사찰이 크게 다르지 않아 아쉬웠다. 사찰별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을 소장한 특성을 살려 인경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참가자들에게 인상적인 수련회로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김명지(경남 마산시 교원동)

체험 일상생활에 접목해야

○ 한번씩 떨쳐려 수련회에 참가했지만, 더 많은 생각에 사로잡혔다. 처음으로 수련회라는 곳에 가보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에 대해 많은 것을 체험하고 알 수 있어

서 신행활동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특히, 108배를 하고 난 후 느낀 성취감은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하지만 수련회에 다녀온 이후 생활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수련회에서 배운 수행과 불교를 생활 속에 접목시키지 못한 결과다. 수련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이후 생활 속에 적용하고 나를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동안 열린 수련회를 통해 배운 것 중 많은 큰 변화가 있었을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아니다.

값진 수련회라면 산사 체험이 생활 속으로 스며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련회 참가자의 올바른 마음가짐과 수련회 프로그램의 변화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이대수(경북 구미시 도량동)

수련회 규율 엄격했으면

○ 지난해 한 사찰에서 열린 여름수련회에 참석했는데, 싱그러운 숲길을 걸으며 스님들과 법담을 나누었던 프로그램이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대화의 내용은 너무 무겁거나 지나치게 가벼운 주제를 피해야 할 것이다.

또 수련회의 규율이 너무 느슨해서 안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선방에서 엄격한 규율 아래 정진하는 것처

럼 사찰 수련회도 묵언정진을 꼭 지켜 하는 등 규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참가자들은 지속적으로 정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수련회에서의 단기간 수행체험은 평생 자신의 수행으로 연결지어질 수 있다. 수련회에서의 체험을 생활의 잣대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가 아쉽다.

수련회가 끝난 후 수련회에서의 경험을 얼마나 자신의 생활로 만들 것인지, 사찰이 정기적으로 주말수련회 또는 겨울수련회를 열어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한다.

김지원(강원 원주시 태장동)

어린이프로그램 개발필요

○ 미항사에서 열린 '어린이 한문학당'에 아이를 보냈다. 워낙 10분만 지나면 지루해하고 특정한 참대와 수세기 번소에 길들여진 앵벌 산사에 보낸다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일주일만 보내고 온 후 아이들의 태도가 물라보게 달라진 것을 보는 부모의 입장은 너무나 부뚱하다.

어른을 대하는 태도가 정중해지고, 햄버거나 피자 등 인스턴트 음식만을 찾던 버릇이 많이 고쳐졌다. 다른 부모님들도 산사 수련회에 애들을 보내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

다만 앞으로 아이들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이 필요하다. 가령 불교의 교리를 쉽게 재미있는 게임 등을 통해서 배우거나, 회향식이 더욱 뜻깊고 재미있는 행사로 될 수 있게 캠프 파이어를 통해 치르거나 하면 아이들은 보다 재미있으면서도 즐거운 수련회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은 좋은 인상이 남으면 오래 기억한다. 사찰 수련회가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사찰의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강령현(서울 동대문구 회경동)

직장·가족위한 수련회도

○ 수련회가 끝나고 바쁜 도시생활로 돌아간 나에게 산사수련회는 불교의 참 의미와 맛을 깨우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스님들이 일일이 지도해 준 발우공양 등 친한경적 심의 넉넉함과 여유도 느낄 수 있는 수련회에 참가하는 것은 가족과 친구들에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시인이 그렇듯이 직장인들은 휴가를 맞춰 가야하기 때문에 수련회가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매우 많다. 여기에 가족까지 떨어져 있는 경우 이들을 이끌고 수련회에 참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직장인을 위해 사찰들은 주말 수련회 프로그램 마련에 적극 나서 주었으면

한다. 또 산사를 찾기 어려운 직장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대도시 인근 사찰들은 직장인과 가족을 위한 여름수련회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남경동(경기 고양시 백석동)

어느때라도 참가할 수 있게

○ 여름수련회에 참가하는 대부분은 스스로 참가를 희망한 경우다. 산사에서의 생활과 수행을 체험하고 싶은 마음에서 일 것이다. 수련회는 불자들의 신심을 돈독히 할 뿐만 아니라 신행의 바탕이 된다.

하지만 사찰수련회는 너무 제한적이다. 모두에게 열린 수련회가 되어야 함에도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더 많은 수련회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여성불자들은 연중 어느 때라도 참가할 수 있으므로

시기를 굳이 여름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참가자들에게 불교를 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한 강의는 수련회 프로그램 중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수준에 맞는 강의가 필요하다. 참가자 중에는 불교에 문외한도 있고, 불교적 상식을 많이 갖춘 이도 있다. 강의실을 달리해 강의를 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진석(광주 서구 쌍촌동)

불자의 생각

휴가

여름휴가를 주제로 126명이 동참한 붓다뉴스 네티즌 설문에서 108명(85.7%)이 이번 여름휴가 때 사찰 탐방을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사찰탐방계획 있다" 85.7%

그렇다'고 대답했고, 18명(14.3%)은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사찰을 찾고 싶은 이유는 79명(69.3%)이 기도수련을 위해, 14명(12.3%)이 자녀들 교육을 위해, 9명(7.9%)이 경치가 좋아서, 8명(7%)이 조용할 것 같아, 4명(3.5%)이 기타라고 밝혔다. 또 사찰을 가지 않는 이유는 20명(55.6%)이 기타, 9명(25%)이 속식이 불편해서, 4명(11.1%)이 다른 곳에서 즐기고 싶어, 3명(8.3%)이 놀이 시설이 없어서라고 답변했다. 임연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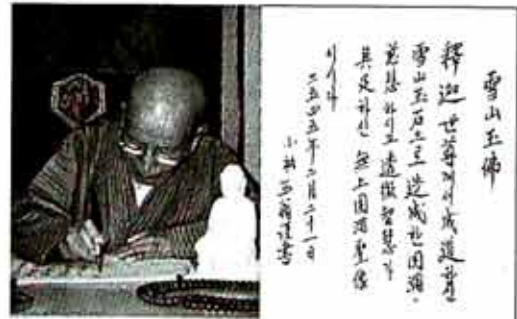


玉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雪山白玉佛

우리부처님
코리아붓다
KOREA BUDDHA
http://www.korea-buddha.co.k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원동 889-1 1663-6444(안양점) 4015
TEL : 서울 (02) 864-8834 부산 (051) 637-2333
FAX : 서울 (02) 839-2185 부산 (051) 637-6888



고봉승림장정 서운 큰 스님 / 주천서